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17편

Jeff Pippenger

2025-12-23

17번

지난 글은 아브람과 바울의 예언, 곧 구절 위에 구절을 더해 보면 30년과 그 뒤의 400년으로 이루어진 430년의 기간이 나온다는 논의를 끝맺지 못한 채 마무리했습니다. 신학계 어딘가에는 30년을 400년 뒤에 오는 기간으로 보는 이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논의에서는 그 30년을 기간의 시작에 둡니다. 400 다음에 30인가, 30 다음에 400인가? 30 다음에 400입니다. 30년의 기간이 존재하고 그것이 두 번째 예언적 기간과 연결되어 그 뒤를 잇는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증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따르면 요셉은 바로를 섬기는 일을 시작할 때 서른 살이었다. 그 뒤 풍년이 일곱 해 있었고, 이어 일곱 해의 기근이 있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가 서른 살이었을 때 2520일의 두 기간이 뒤따랐다. 그리스도께서 서른 살이었을 때에는 1260일의 두 기간이 뒤따랐는데, 이는 합하여 2520일이 되며, 다시 두 나라에 대한 일곱 때와 연결된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서른 살이었고, 사무엘하 5:4에 기록된 대로 사십 년 동안 통치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스도께서 서른 살이 되셨을 때 세례를 받으신 뒤 사십 일 동안 광야로 이끌리셨고, 또한 세례로 예표된 그분의 부활 이후에는 사십 일 동안 머무르시며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셨다.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의 파괴는 자비로 사십 년 동안 미루어졌는데, 이는 그들의 언약 역사가 시작될 때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십 년과 상응한다.

에스겔은 에스겔 1:1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서른 살이었다. 지금은 에스겔이 서른 살이 된 이후의 기간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의 사역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관한, 확립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간단한 AI 요약은 덧붙이겠다. "에스겔의 예언은 구약에서 날짜가 가장 정확히 제시된 것들 가운데 하나로, 책 전반에 걸쳐 13개의 구체적인 날짜가 제공된다. 이 모든 날짜는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혀간 해를 기준으로 계산되며(기원전 597년을 1년으로 간주), 약 22년에 걸친 명확한 연대기적 틀을 제공한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서른 살이셨고, 그 후에 한 주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증하셨다.

예언에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따라 전개되며,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 사역을 맡기 위해 30년 동안 준비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에게 식별된 30년의 준비 기간은 508년에 '상번제'가 제거된 때부터 538년까지였다. 그리스도께서 침례 때 권능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교황권이 가짜 대제사장으로 권세를 부여받았을 때, 교황권의 암흑기 1260년은 그리스도께서 침례부터 십자가까지의 순전한 빛의 1260일과

평행을 이루며, 이는 1798년의 교황권의 치명적 상처와 일치한다.

서른 해로 시작하는 이전의 그 어떤 이중 기간도 아브람의 세 단계 언약 과정에서의 첫 단계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아브람의 경우이며, 다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두 번째 증언으로 입증된 뒤였다. 바울이 글을 기록했을 때 400년의 예언은 430년의 예언이 되었고, 처음 30년은 그 나머지 기간과 구분되어 분리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알파와 오메가로 나타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아브람과 바울의 '삼십 년, 그 뒤에 사백 년'이라는 이중 예언에 대한 오메가에 해당하는 자들인 십사만 사천의 언약 과정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이 반드시 언약 역사의 오메가, 곧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십 년의 기간과 그 뒤를 잇는 또 하나의 분명히 구분되는 기간이, 시간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아브람의 기초적인 430년 예언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방금 진술을 다시 한 번 읽고, 이 지점으로 돌아와 계속 읽어 주기 바란다.

예수, 요셉, 다윗, 그리고 에스겔은 모두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할 사역을 위해 30년 동안 준비되었다.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 그리고 왕인 다윗. 네 가지 상징이 있으나, 그중 하늘의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상징 하나는 인간 대표와 신적 대표를 함께 가진다. 이 네 증인은 모두 아브람의 30년과 그 뒤를 잇는 예언적 기간과 일치한다.

적그리스도는 30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260년 동안 권세를 받았고, 1798년에 첫째 사망을 맞았다. 그녀는 둘째 사망의 상징인데,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 다시 죽기 때문이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구주를 섬긴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며,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으셨다.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면,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녀가 다시 42개월 동안 통치할 것임을 밝힌다. 이는 시간적 요소가 없는 예언적 기간을 상징한다.

그녀가 일요일 법령 때 부활할 때, 그녀의 일을 대적하는 군대는 요한계시록 11장의 삼일 반이 끝날 때 부활한 자들이다. 둘 다 기치인 두 부활한 권세—하나는 제칠일 안식일의 기치요 다른 하나는 태양의 기치—가 인류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최종 선택을 할 때 온 세상의 기준점이 된다.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적그리스도, 곧 짐승은 용과 자기 자신(곧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을 대표할 것이다. 그 세 권세는 산들의 꼭대기 위에 놓여지게 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하는 교회는 30년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는 문자적인 30년이 아니라 그 수 30이 붙어 있는 확정된 예언적 기간을 말하며, 예언적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밝힌 1844년의 명령 이후에도 여전히 예언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이 30년은 예언자-제사장-왕, 곧 승리하는 교회로서 영광의 왕국을 대표할 자들을 위한 준비 기간을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에스겔, 그리스도, 요셉, 다윗의 네 증인은, 교황권과 삼중 연합이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끌고 있는 바로 그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대표한다.

승리하는 교회는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 높임을 받으며, 구약과 신약의 증언에 따르면 언약의 백성인 14만 4천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거룩한 제사장 무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5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할 때 30세여야 했으므로, 일요일 법령 이전에 제사장직이 첫 열매의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봉사하도록 준비되는 기간이 존재한다. 14만 4천인 제사장들은 언약의 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결의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로 표상된다. 일요일 법령으로 이끄는 예언적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정결의 과정이 늦은 비의 시기를 위한 성별된 사역을 준비한다. 그 준비는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므로, 30년의 기간은 제사장들의 준비를 대표하며, 따라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연령과 상응한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30세에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므로 그 역시 30세에 그의 봉사를 시작했다. 거짓 그리스도도 3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므로, 30년의 기간이 제사장직의 준비를 나타낸다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

"임박한 중대한 쟁점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자들을 가려낼 것이며, 그분은 늦은 비를 위해 준비된 순결하고 참되며 성별된 사역자들을 두실 것이다." 선택된 기별, 제3권, 385쪽.

화이트 자매는 교회가 순결할 때마다 예언의 영이 활동한다고 직접 가르친다. 중대한 쟁점이 가라지를 숙아낼 때, 너희는 예수와 신성과 인성을 겸한 제사장 요셉, 예수와 선지자 에스겔, 예수와 왕 다윗으로 이루어진 성별된 사역을 갖게 될 것이다. 삼십 년으로 상징되는 기간 동안 준비된 자들은 14만 4천에 속하게 되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표상된다. 이 세 사람 모두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제사장·왕의 사역을 나타내는 성경적 상징들이므로, 삼십이라는 수는 삼십 년 동안 준비된 성경적 상징들에 의해 산출된 이 세 범주 각각이 그리스도와 결합될 때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대표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삼십 년의 기간 동안 준비된 그런 제사장들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됨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표상된다.

교황권이 별이는 최후의 유혈 학살의 42개월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42개월 동안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 일어난다. 속박과 억압의 42개월은 아브람의 이중 예언의 430년이 상징하듯 해방으로 끝난다. 아브람의 400년은 홍해에서의 해방으로 끝나며, 이는 교황의 상징적 42개월의 끝에 있는 유예 기간의 종결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성경적 예시이다.

마흔두 달은 미국에서의 일요일 법령으로부터 인류를 위한 은혜의 때가 닫힐 때까지의 시험 기간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 마흔두 달 동안, 30년의 준비 기간에 이어,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 언약을 확증하고 계신다. 적그리스도의 거짓 제사장은 최후를 맞는다. 그 지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역사적 선상에서 죽으신 바로 그 자리이며, 곧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의 역사적 선상에서 죽은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하다. 갈멜 산에서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일요일 법령에서 거짓 선지자의 죽음을 가리킨다. 일요일 법령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거짓 선지자, 바로로 대표되는 용,

교황권으로 대표되는 짐승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일요일 법령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요일 법령 직전에 교회가 정결케 되고, 거짓 선지자가 죽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언의 은사가 회복된다. 그때부터는 싸움이 참된 예언의 기별인가 거짓 예언의 기별인가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상징적인 30년 기간은 일요일 법령에 앞서는 기간을 나타낸다. 그 기간은 제사장들을 위한 준비 기간인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서 그들의 본이 되시기 때문이며,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다. 아브람의 예언의 처음 30년 안에 언약이 세워졌으므로, 제사장들을 위한 준비 기간이 무엇을 대표하든, 그것은 아브람의 알파 역사로 예표된 바와 같이 주께서 14만 4천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기간임을 드러낸다. 그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침례 때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서른 살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일요일 법령 때 봉사를 시작하게 되는 준비의 때이다. 아브람의 알파 역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일요일 법령으로 이끄는 그 기간이 무엇을 대표하든지 간에 반드시 중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메가는 항상 알파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일요일 법령은 1844년 10월 22일, 십자가, 애굽의 유월절 등으로 대표되는 오메가이다.

일요일 법령은 삼십 년 기간으로 표상된 시기의 끝을 나타낸다. 그것은 거의 모든 주요 구원의 이야기에서 미리 예표되어 왔으며, 아브람으로 시작된 선택된 백성의 언약 역사의 끝이기도 하다. 그 기간의 끝에 관한 그러한 예언적 증거의 무게와 그 기간 자체의 중대한 목적을 고려할 때, 시작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수많은 증언에 근거하여 30년으로 표상되는 예언적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일요일 법령에서 끝난다. 그 시점 이후에는 여러 가지 수치로 표현되는 기간이 뒤따르며, 각각의 기간은 일요일 법령 이후에 이어지는 예언적 역사의 흐름에 대한 증언을 제시한다. 그 기간들 중 일부는 교회 역사의 내부적 흐름을 나타내고, 일부는 아마겟돈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외부적 흐름을 나타낸다.

이 시점에서, 재앙이 끝날 때 그 날과 그 시가 선포될 때까지, 말세에 특정한 날짜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시간 예언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해 두는 것이 아마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예언적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니엘서 12장을 사용하겠습니다. 12장에는 예언적 시간을 제시하는 절이 세 개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베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라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흠어지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마치리라 하더라.
다니엘 12:7.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제거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는 천이백구십 일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12:11.

기다리며 천삼백삼십오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니엘 12:12.

밀러파는 이 세 구절 각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 세 예언은 기초를 이루는 진리들의 일부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 대한 밀러파의 이해는 일일일년 원칙을 적용하는

데 기초해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하므로, 모든 예언이 늦은비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만큼 이 구절들은 또 다른 적용을 지녀야 한다. 이 구절들은 시간을 사용해 메시지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도, 그 구절들에 대한 밀러파의 이해와 모순되지 않는 늦은비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 세 구절의 가운데 구절(11절)에 대한 올바른 밀러파의 견해는 그것이 두 부분으로 된 기간을 나타내며, 먼저 30년의 기간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1260년이 따른다는 것이다. 11절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으로 대표되는 일요일 법령에 앞선 30년의 기간을 지목하고 있다.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봉함에서 풀리는 종말의 때, 곧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정결의 과정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이다. 11절에서 우리는 초기 선구자들이 올바르게 1260년 기간으로 이어지는 30년 기간으로 이해했던 한 예언을 발견한다. 12장에서는 7절, 11절, 12절의 세 예언이 모두 종말의 때까지 봉함되어 있다. 종말의 때에 그 세 예언은 반드시 봉인이 풀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 장에서 성경 전체 가운데 인류의 은혜의 시기 종결에 대한 가장 분명한 표현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12장은 재림주의의 시작보다 그 끝을 훨씬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다니엘서 12장의 세 가지 예언은 봉함과 개봉의 예언적 정의가 가장 근본적으로 규정되는 바로 그 성경 본문에서 봉해졌다. 그 세 예언은 십사만 사천의 역사 속에서 개봉되는데, 이는 알파와 오메가가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과 함께 보여 주기 때문이다. 12장의 세 예언적 기간에서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 개봉을 의미한다. 그 개봉은 은혜의 시한이 끝나기 직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개봉될 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제시된다. 다니엘서 12장 11절은 30년 기간으로 시작된 이중 예언에 대한 아브람과 바울의 최초의 제시와 상응한다.

다니엘서 12장의 세 가지 예언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봉인이 풀리는 상징적 기간들이며, 그 봉인의 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정결로 이어진다. 그 세 예언 중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것으로, 그가 그 예언을 선포하실 때 세마포 옷을 입고 물 위에서 계시며, 1,260년으로 나타난 예언적 기간의 끝을 지목하고 그 기간의 끝을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가 흠어진 일이 끝나는 때로 규정하신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 명이며, 그들은 흠어져 왔다.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서서 질문에 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은 "얼마 동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은 예언적 상징으로,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얼마 동안?"이라는 질문이 제기될 때 예수께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는 벼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내가 들으니,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일 것이며,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 버리는 일을 마치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였다. 다니엘 12:6, 7.

히데겔 강의 환상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께 제기된 질문은 “이 기이한 일들의 끝이 언제까지이겠느냐?”이며, 올라 강(올라 강)의 환상에서는 팔모니(그 어떤 거룩한 이)로 나타난 예수께 “매일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그 환상, 곧 성소와 군대가 밟아 짓밟히도록 내어주어지는 일이 어느 때까지이겠느냐?”라고 묻는다.

화이트 자매는 시날의 큰 두 강가에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들이 지금 성취 과정에 있으며, 그 두 강 환상과 관련하여 예수께 예언적 '질문'이 제기되는데, 그 '답'은 언제나 일요일 법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두 답은 모두 1844년에 끝난 예언적 시간의 맥락 안에서 제시되어 있다. 개척자들은 8장과 올라 강 환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밝혀냈고, 1798년이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가 흠어지는 일이 끝난 때임을 이해했다. 그러나 1844년 이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시간 적용'이 끝난 뒤에는, 예언적 질문인 "How long?"이 개척자들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다시 진술한다. '2300일까지니, 임박한 일요일 법령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상징적 삼일 반 동안 흠어지는 일이 끝날 때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 있는 "모든" "기이한 일들"이 성취될 것이다.

다니엘서 마지막 세 장에 나오는 히데겔 강의 환상과 7장부터 9장에 나오는 올라 강(올라 강)의 환상은 화이트 자매에 의해 '스날의 큰 강들'로 규정되었다. 모든 역사학자와 성경학자는 스날과 관련된 강은 오직 두 개뿐이며, 둘 다 큰 강이라고 본다. 그 두 강은 티그리스(히데겔)와 유프라테스다. 올라 강은 스날의 유프라테스가 아니라, 스날이 아닌 페르시아의 작은 인공 수로이다. 재림운동의 기초와 중심 기둥을 담고 있는 그 환상에 등장하는 올라 강은 스날에 있지 않지만, 그 여선지자는 올라 강을 스날의 큰 강들 가운데 하나인 유프라테스로 지칭한다.

히데겔 환상은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외적 역사를 제시하고, 올라 강 환상은 그분의 신성을 인간의 인성과 결합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다. 예언적으로 영감은 유프라테스 강과 함께 올라 강을 제2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인성과 결합하여 이루시는 사역을 밝혀 준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둘 다 에덴에서 시작되어 언약의 역사 전반을 관통해 흐른다. 이들이 1844년 10월 22일 재림주의 중심 기둥으로 흘러들어갈 때, 유프라테스 강은 사람이 만든 올라 강과 결합되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하는데, 이는 14만4천으로 표상된 이들의 믿음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올라 강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시험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페르시아의 올라 강을 시날의 큰 강들 중 하나로 규정한 엘렌 화이트의 권위를 세상의 전문가들과 대립시키기 때문이다.

올라 강의 상징은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가르는 시험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옳은가, 아니면 화이트 자매가 제시한 말이 옳은가? 올라 강은 페르시아에 있는 하나의 강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에덴에서 나온 물과 사람에게서 나온 물이 뒤섞여 이루어진 예언적 강을 가리키는가?

내가 제기한 이 딜레마에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요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생각을 펼쳐 보겠다. 세속의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이 옳고 화이트 자매가 틀렸는가? 누구도 "스날의 큰 강들"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이트 자매가 페르시아에 있는 올라 강을 스날의 큰 강으로 지목한 것은

그녀가 거짓 선지자라는 뜻인가? 아니면 실수를 한 참된 선지자인가? 참된 선지자가 몇 번이나 실수하면 선을 넘어 거짓 선지자가 되는가? 아니면 역사가들이 틀렸는가? 아니면 실제로 그녀가 옳은가? 아니면 역사가들과 화잇 자매가 둘 다 옳은가? 내가 이 딜레마를 제기한 것은, 히데겔과 올래 두 강의 환상에서 모두 강 위에서 있는 세마포 옷 입은 사람에게 "얼마 동안?"이라고 묻는 장면에 대해, 이 딜레마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인 논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수산에 있으며, 수산은 농업 산업으로 인해 자연 하천뿐 아니라 여러 인공 수로들까지 포함하는 올라이 강가에 자리하고 있다. 올라이는 약 150마일가량 더 하류로 흘러가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합류부에 연결된다. 에덴에서 시작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결국 합쳐지며, 그들이 합류할 때 페르시아에서 내려오는 올라이 강도 같은 지점에서 합류한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합류부에서 올라이 강이 티그리스의 늪지대와 맞닿게 되면, 올라이는 시날의 큰 강들을 이루는 물의 일부가 된다. 역사가들이 옳고, 화이트 자매 역시 그렇다.

화이트 자매가 8장에서 올라이 강의 환상을 지칭할 때, 그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연결하는 인공 수로 체계로 알려진 한 강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두 강은 각각 1798년과 1844년에 끝난 2520년의 두 기간을 상징한다.

티그리스강의 고대 이름은 히데겔이며, 유프라테스강과 관련하여 이 두 강은 예언에서 앗수르와 바벨론과 연관된 것으로 분명히 지목되어 왔다. 앗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양떼를 징계할 두 마리 사자로도 지목된다. 그 두 황폐하게 하는 권세는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두 황폐하게 하는 권세를 예표했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 혹은 교회와 국가의 상징이다. 이교 로마는 통치술을 대표하는 남자였고, 교황 로마는 교권의 부정한 여자이다. 예언적 관계에서 앗수르는 남자이고 바벨론은 여자였으며, 따라서 티그리스강은 남자, 유프라테스강은 여자로 규정된다.

티그리스강은 1798년에 이르렀던 정치권력의 강이고, 교권의 강인 유프라테스강은 1844년에 이르렀다. 유프라테스강은 1844년에 이르러야 했는데, 1844년의 메시지는 1844년에 다시 무너진 바빌론(유프라테스)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프라테스강이 1844년에 폭포를 이루었을 때,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며 함께 합류해 있던 올라이강이 다른 강물과 합쳐졌다. 정치권력의 강은 1798년에, 교황권에서 세속 권위가 제거되었을 때 댐으로 막혔다. 같은 해에 미국은 성경 예언에서 땅의 짐승이자 여섯째 왕국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 티그리스강은 1798년에 댐으로 막혔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훗날 국가가 전 세계로 하여금 지금은 전 세계를 압도하는 홍수처럼 몰아칠 교황권 박해의 물결을 막아 두고 있는 그 댐을 허물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 벽, 곧 댐은 정교분리의 장벽이다.

1844년에 유프라테스와 올라이 강 둘 다 1844년의 기별이 바벨론의 몰락임을 가리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시작하신 바로 그 사역임도 가리킨다. 곧 그분이 언약의 사자로서 자신의 성소에 들어갈 백성—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함을 받아야 했던 백성—에게서 바벨론의 물과 인간의 행위를 제거하여 정결케 하신 그 사역이다. 그 백성의 최종적인 정결은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 아래 쏟아진 비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의 그 빗방울들은, 밀러주의자들이 교황권 로마와 1798년을

식별하고 바벨론의 몰락을 식별하며 닫힌 문에 앞서 그 기별로 정결함을 받을 때, 티그리스 강의 물에서 증류되어 온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다니엘 8장 14절의 기별을 제시하고, 반형적 대속죄일이 열리기 전에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성취할 때, 올래 강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증류된 물에서 온 비에 의해 정결케 되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히데겔의 물 위에서 계실 때, 그분은 곧 티그리스의 물, 즉 은혜의 시기의 종료로 이어지는 인간 정치의 마지막 전개를 개관해 주는 그 환상에서 정치를 뜻하는 물 위에서 계신 것이다. 그분은 그곳에서 앞절의 질문에 답하고 계신데, 이는 올라이 강의 환상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거기서는 팔모니, 기묘한 계산자가 앞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과 같다. 두 경우 모두 그 대화는 천사들과 그리스도 사이의 하늘의 대화이며, 두 경우 모두 질문은 "얼마 동안이겠느냐?"이다.

그 답은 2300일까지이고, 8장과 12장에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그 답은 2300년과 1260년으로 이해되지만, 1844년에 하나님께서 예언적 기별 안에서 시간의 적용을 금하셨으니,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옷을 입은 자 팔모니께서 그분의 마지막 세대를 위해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얼마 동안이겠느냐?'라는 질문은 많은 증거를 통해 그 질문의 답이 일요일법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성소는 일요일법 때에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은 일요일법 때에 끝나는 것입니까? 일요일법 때에 끝나는 '기이한 일들'은 무엇이며, 그 '기이한 일들'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하나는 강둑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 저쪽에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베옷을 입고 강물 위에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에서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가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이며,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여지게 하는 일을 마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였다. 다니엘 12:5-7.

'얼마 동안인가?'라는 상징적 질문은 주일법을 가리키며, 그 천사는 주일법이 언제였는지를 묻지 않고, 이적들의 끝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이적'은 주일법에서 끝나므로, 주일법으로 이끄는 그 이적들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 히데겔에서 주어진 환상, 곧 10-12장에 제시된 그 환상에서 '이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이적'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있다면, '이적'이 언제 시작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 10장에서 가브리엘은 환상 가운데 다니엘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힌다.

이제 내가 왔노니 네 백성이 후일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 10:14.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에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이해시키기 위해 왔다. 다니엘 12장의 예언들이 밀러파에 의해 올바르게 이해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인정으로 이 장을 마지막 때에 적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가브리엘이 밝힌 목적을 좌절시키는 일이다. 가브리엘이 11장 1절에서 시작하여 12장 3절까지 예언의 서술을 전개하면, 그가

제시하는 역사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지를 보여 주는 외적 예언적 세부 사항들이다. 장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받는 것을 묘사하는 구절들도 있지만, 11장의 역사는 주로 외적인 계시이다. 이는 10장과 12장이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를 이룬다는 뜻인데, 11장과 달리 두 장 모두 14만 4천의 인침을 식별하는 내적 메시지를 묘사하기 때문이다. 가운데 장은 북방의 왕, 곧 로마의 교황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반역이며, 알파에 해당하는 10장과 오메가에 해당하는 12장은 마지막 때 14만 4천의 내적 체험을 식별한다. 이 세 장 모두 은혜 시한의 마감으로 이끈다. 알파 장은 두 부류의 예배자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고, 장의 끝에서 다니엘은 배가된 능력을 받는데, 이로써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드러난다. 12장은 오메가 장이며 셋째 천사의 심판 기별을 드러낸다.

제11장은 예루살렘의 파괴로부터 은혜의 시기 마감에 이르기까지의 인류의 반역을 상세히 다루는데, 화이트 자매에 따르면 이것은 세상 끝에 있을 은혜의 시기 마감의 한 예증이다. 다니엘 11장은 예루살렘의 파괴에서 시작하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세 차례에 걸쳐 파괴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 세 차례의 파괴는 서기 70년에 같은 도시가 파괴된 일을 예표했으며, 또한 세상으로 표상되는 말세에 다시 한 번 일어날 파괴를 예표하였다.

예루살렘의 두 번의 실제 멸망이 665년의 간격을 두고 연중 같은 날에 일어났다. 그 두 멸망은 언약궤가 있어야 했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실로 역시 동일한 예언적 특성을 지니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나 있어야 했던 도시의 첫 번째 멸망을 가리킨다. 화이트 자매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세의 멸망의 상징으로 사용할 때, 그녀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그리스도의 설교를 논평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와 느부갓네살 치하의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티투스 치하의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의 도성의 파괴로 드러난 말세의 세 증인이다. 실로는 첫째 천사의 기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데, 이는 엘리가 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느부갓네살과 티투스로 대표되는 이종이 나타난다. 말세의 세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곧 심판이 마감될 때에 일어난다.

열한 번째 장은 세 천사의 기별의 외적 역사이다. 그것은 열 번째 장의 분리의 환상과 다니엘의 환상 중 스물두째 날에 일어나는 힘을 주는 세 차례의 접촉 사이에 끼어 있다. 이는 열두 번째 장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일들에 관한 내적 이야기라는 뜻이다. 또한 열두 번째 장 안의 빛이 열 번째 장의 빛보다 스물두 배 더 밝다는 뜻이기도 하다.

올라이 강의 환상에서 그리스도께도 “얼마 동안입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13절의 질문에 이르기까지 앞선 열두 절은 성경 예언의 세력들에 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나타내는 외부의 예언적 역사를 밝혀 주고 있었다. 그 열두 절은 단지 7장에 제시된 역사를 반복하고 확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 절들에 제시된 예언적 역사는 메대와 바사의 시대에서 시작하여 11장에서 반복되고 더욱 확장된다. 8장 후반부와 9장 전체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표상이다. 올라이 강의 환상이 담긴 세 장에서 발견되는 예언적 역사의 환상과, 다니엘이 가브리엘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

장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상은 10장부터 12장까지의 처음과 끝을 이룬다.

히데겔이 오메가이고 올라가 알파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이르러 열두 장에서 봉인이 풀린 빛이 나타내는 능력은 재림주의의 중심 기둥이자 토대가 되는 그 환상보다 스물두 배 더 밝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빛은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빛으로 직접 규정된다.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 기이한 일들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라고 물을 때, 그 기이한 일들은 아브람에게 별들을 보라고 명하신 말씀이 그의 언약 역사 속에서 메아리치듯, 영원무궁토록 별처럼 빛나는 이들을 가리킨다. 다니엘 12장의 기이한 일들은 인간이 14만 4천의 기치로 변모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11절이 두 기간으로 이루어진 예언적 시기를 가리키며, 그 첫째는 30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11절에 올바른 강조점을 두기 위해 나는 7절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말세에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이루시는 기이한 일들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관여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다니엘 12장 11절로 돌아가 말씀드리자면, 다니엘 12장은 가브리엘에 의해 직접 ‘마지막 때’로 불립니다. 14만 4천의 때, 곧 그들이 인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날들에, 다니엘서에 따르면 인봉이 풀린 한 기별이 있어 큰 외침으로 고조될 것입니다. 그 기별은 다니엘 12장에서 서로 구별되는 세 예언적 기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미 밀러주의자들이 정의하였고 그 후 예언의 신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그 세 기간은 시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2장에서 양손을 하늘로 들어 올린 바로 그 동일한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한 손을 하늘로 들고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1844년에 있었던 그 선언은 다니엘 12장의 세 예언적 기간이 시간을 나타내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징적 기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에서, 미가엘이 일어서는 바로 그 장에서,中间的 상징적 예언 기간이 30년으로 시작하는 이중 기간임을 볼 때, 30년으로 시작하는 그 이중 기간이 아브람의 알파 예언의 완전한 성취임을 알 수 있다. 선민을 기준으로 언약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 예언의 오메가는,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니엘이 증언한 내용의 절정인 바로 그 장에서 완전한 성취에 이른다.

종말의 때에 다니엘서의 봉함이 풀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빛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친다. 종말의 때에 다니엘서의 봉함이 풀리고 그때 나타난 빛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 안의 세 가지 예언적 기간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장은 히데겔 환상을 이루는 세 장의 오메가이며, 히데겔 환상은 다니엘의 강 환상들 가운데 알파를 대표하는 세 장에 대한 오메가이다. 에덴에서 시작된 강들은 마침내 다니엘에게 가 닿았고, 이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것들을 첫째와 둘째 천사의 밀러라이트 운동, 곧 세 천사의 두 운동 가운데 알파로 이끌었다. 11절의 1290년은 아브람과 바울의 430년 예언에 대한 오메가이다.

다니엘 12장과 그것이 아브람의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을 뿐 아니라, 못지않게 중요하게도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경륜적 선지자였다는 점입니다. 경륜적 선지자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한 경륜에서 다른 경륜으로 인도하도록 세움받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제단 예배에서 성소 예배로, 세레 요한은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문자적인 것을 영적인 것에 적용하는 데 관한 정보와 원칙을 다른 모든 성경 저자들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맥락에서 문자에서 영으로의 전환을 설명하도록 세움받았습니다.

선민이 문자적 선민에서 영적 선민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선민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을 잇는 연결 고리였다. 언약 역사에서 바울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자리 잡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최초의 시간 예언이 30년 기간으로 시작되는 이중의 시간 예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꼭 맞는지 보지 못할 수 있다. 하나는 선민의 조상에 의해 세워진 예언이고, 그들이 영적 선민으로 전환할 때 그 전환을 식별하고 설명하도록 한 시대적 예언자가 일어나, 구약의 첫 증인과 일치하는 신약의 두 번째 증거로 아브람의 시간 예언을 확증하였다. 처음에는 아브람이, 마지막에는 바울이 말세의 1290의 의미를 전형적으로 드러낸다.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스가라가 본 여호수아와 천사의 이상은 그 위대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경험에 특별히 강하게 적용된다. 그때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무리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탄은 세상을 자기 지배하에 있는 자들로 헤아리며,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이들까지도 장악했다. 그러나 여기 그의 지배권에 맞서는 작은 무리가 있다. 그가 그들을 땅에서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그의 승리는 완전해질 것이다. 그가 이방 민족들을 부추겨 이스라엘을 멸하게 했던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그는 땅의 악한 권세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인간의 칙령에 복종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이들은 위협받고, 규탄받고, 금지당할 것이다. 그들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것이다. 누가복음 21:16.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유일한 방어 수단은 기도뿐이다.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서 간구한 것처럼, 남은 교회는 상한 마음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들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최악됨을 온전히 자각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을 보며, 절망 직전에 서 있다.

유혹자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려 곁에 섰던 것처럼, 그들을 참소하기 위해 곁에 선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과 결함 있는 품성을 가리킨다. 그는 그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배은망덕의 죄, 그리스도를 닮지 못함을 내세우며, 그것이 그들의 구속주를 욕되게 했다고 한다. 그는 그들의 형편은 가망이 없고 그들의 더러움의 얼룩은 결코 씻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려 한다. 그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란다.

사탄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범하게 한 죄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음을 선언하고, 자신이 그들을 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들 또한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어 마땅하다고 선고한다. 그는 말한다. "이들이 하늘에서 나의 자리와

나와 연합했던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이란 말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그 계명들을 지켰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그분을 섬기는 일보다 앞세우지 않았는가?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삶을 특징지은 죄들을 보라.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 서로에 대한 미움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내 천사들을 그의 임재에서 쫓아내시고도, 같은 죄를 범한 자들은 상 주시겠는가? 주여, 공의로우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공의는 그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은 사탄의 세력에 지배당하도록 자신을 내맡기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통회로 주님을 찾았으며, 신성한 변호자가 그들을 위해 변호하신다. 그들의 배은망덕으로 가장 크게 모욕당하셨고 그들의 죄와 회개를 다 아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언하신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었다.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들에게 품성의 결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노력에서 실패했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회개했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사탄의 공격은 강하고 그의 미혹은 교묘하지만, 주의 눈은 그의 백성을 감찰하신다. 그들의 환난은 크고 풀무불의 불길이 그들을 삼킬 듯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불로 연단된 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세속성은 제거되어,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때때로 주님은 자신의 교회가 처한 위험과 원수들이 교회에 가한 해를 잊으신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분의 교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세속적 정책이 교회의 기록을 더럽히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을 잘못 나타내는 자들은 벌하실 것이나,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성장을 위한 힘을 그분께 구하는 이들에게 그분은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실 것이다.

끝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며 울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악인들에게 신성한 율법을 짓밟는 위험을 경고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통회하며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출 것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슬픔을 조롱하고 그들의 엄숙한 호소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 고뇌와 겸비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품성의 힘과 고귀함을 그들이 회복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그들이 죄의 지극한 죄악성을 그토록 분명히 분별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완전한 순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이다. 십자가 발아래 엎드리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 신실하며 기도하는 이들은, 말하자면, 그분과 함께 갇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든든히 보호받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사탄에게 부추김을 받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들을 멸하려 한다. 그러나 도단에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둠의 군대를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앞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마음의 정결을 간구할 때,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보라, 내가 네 죄악을 네게서 제거하였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격려의 말씀이 주어진다. 스가랴 3:4. 그리스도의 의의 흠 없는 옷이 시험과 유혹을 견디어 낸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입혀진다. 멸시받던 남은 자들은 영화로운 예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보존되어, 모든 시대의 신실한 자들 가운데에 등재된다. 그들은 속이는 자의 간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충성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궤계로부터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정결한 관'이 씌워진다.

"사탄이 그의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이 이리저리 오가며 신실한 자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다. 이들은 어린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 있는 자들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4, 5."

"이제 천사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제 들으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네 앞에 앉아 있는 네 동료들과 함께 들으라. 그들은 놀라움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일으킬 것이다.' 스가랴 3장 8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의 구속자이자 구원자로 나타나신다. 이제 참으로 남은 자들은 '놀라움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되니, 그들의 순례의 눈물과 굴욕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기쁨과 영예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 날에 여호와와 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며,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 가운데 피한 자들에게는 훌륭한 것으로 아름답을 것이다. 시온에 남은 자와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 4장 2, 3절." 선지자와 왕 587-592쪽.